

박용택 “2000안타가 끝이 아니다”

KBO 통산 6번째 2000안타 주인공

LG 8연승 이끈 결승타로 대기록 완성
“2008년 좌절 맛보며 재기할 수 있었다”

LG 박용택(37)이 통산 2000안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용택은 11일 잠실 NC전에 3번 지명타자로 선발출장해 4타수 2안타 1타점을 기록하며 1760경기 만에 37세3개월21일의 나이로 개인통산 2000안타를 완성했다. 이로써 양준혁(삼성·2007년), 전준호(히어로즈·2008년), 장성호(한화·2012년), 이병규(LG 9년·2014년), 홍성흔(두산·2015년)에 이어 KBO리그 역대 6번째로 대기록을 달성했다.

개인통산 2000안타는 100안타씩 20시즌을 꾸준히 치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는 어려운 기록이다. 박용택은 2002년 프로에 데뷔해 86안타를 친 2008년을 제외하고 무려 14시즌을 100안타 이상씩을 때려냈다. 2012년부터는 KBO리그 최초 4년 연속 150안타 이상을 기록했고, 올해 5년 연속에 도전하고 있다.

박용택의 2000번째 안타는 멋지게 완성됐다. “가능하면 홈구장(잠실)에서, 팀 승리에 보탬이 되는 안타로 기록을 달성하면 좋겠다”던 그의 바람은 통했다. 1999번째 안타를 1-1로 맞선 3회 1사 1-3루서 우전 적시타로 만들었다. 8연승을 이끈 결승타였다. 2000번째 안타는 추가점이 필요했던 7회 2사서 나왔다. 볼카운트 2B-2S에서 NC 2번째 투수 원종현을 상대로 슬라이더를 받아쳐 1루수와 2루수 사이를 가르는 우전안타를 만들었다. 비록 후속타가 터지지 않아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기술적으로 만들어진 안타로 2000번째 히트를 장식했다.

KBO리그 개인통산 2000안타 클럽 가입자

선수명(팀)	달성일자	상대팀(구장)	경기수
양준혁(삼성)	2007.6.9	두산(잠실)	1803
전준호(히어로즈)	2008.9.11	롯데(사직)	2052
장성호(한화)	2012.9.18	삼성(포항)	1915
★이병규(LG·9번)	2014.5.6	한화(잠실)	1653
★홍성흔(두산)	2015.6.14	NC(잠실)	1895
★박용택(LG)	2016.8.11	NC(잠실)	1760

★은 현역선수

박용택에게도 ‘2000안타’는 의미 있는 기록이다. 그는 “내가 야구를 시작하면서 2000안타를 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내 20대는 실패와 좌절의 공간 속에 있었고 이를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다보니 야구를 왔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야구인생이 2009년 터닝포인트를 맞았다고 했다. 당시 0.372(452타수 168안타)라는 고타율을 기록하면서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30대가 되면 야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고, 실제 30대가 되면서부터 야구기량을 더 꽃피우고 있다.

물론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20대는 혼돈 속에서 맨몸으로 부딪혔다면, 30대가 되면서부터는 더 철저하게 야구에 대해 파고들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몸 관리부터 야구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 야구에서 9할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심리력 부분까지 컨트롤하기 위해 부단히 애썼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박용택은 2000안타까지 올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야구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라고 꼽았다. “그것만큼은 어느 선수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할 정도로 매일 치열하게 야구와 싸우고 있다. 2000안타에 안타 2개를 남겨둔 이날 경기 전 “(3000안타까지) 1002안타가



LG 박용택(오른쪽)이 11일 잠실 NC전 7회에 우전안타로 KBO리그 역대 6번째 개인통산 2000안타를 달성했다. 양상문 감독(왼쪽)은 7회 종료 후 미리 준비한 꽃다발을 선물하며 대기록 달성을 축하했다.

남았다고 생각하고 타석에 임하겠다”는 말이 허투루 하는 농담이 아닌 이유다.

●LG 박용택=울컥했다. 2000안타 기록도 좋지만 2000안타에 결승타가 포함되어서 좋고, 팀이 8연승해서 더 기분 좋다. 2008년 규정타석도 못 채우고 처음으로 2군도 가보는 좌절을

맛보면서 2009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 같다. 2000안타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직 한 시즌 20홈런, 100타점 같은 기록을 못 해본 게 아쉽다. 앞으로 타격에 있어서 더 발전시킬 자신이 있으니 다른 기록에도 도전해보겠다.

잠실 |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이장석 구속 위기…16일 히어로즈 운명의 날

넥센 히어로즈의 실질적 구단주인 이장석(50) 대표가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11일 20억원의 투자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4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횡령(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는 2008년 KBO에 널 가입금

(120억원)이 부족했던 이 대표에게 돈을 빌려줬던 재미동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에그를 회장이 지난 5월 이 대표와 남궁총환 부사장(단장)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지분 40%를 받는 조건으로 2008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10억원씩 총 20억원을 투자했다는 홍 회장과 ‘단순 대여금’으로 주장한 이 대표는 2012년부터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이 대표는 8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6시간 가까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20억원은 투자금이 맞다”며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이 대표와 남궁 부사장이 야구장에 입점한 매점 보증금 등 40억원을 법인이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아 착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실질적 구단 소유주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

고척 | 이명호 기자 nirvana@donga.com

스포츠토토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KBO 프로야구 기록실 <11일>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무	승률	개최연속타율	타율	방어율	홈승률	득점	실점	홀런	도루	실책	
1	두산	104	64	39	1	0.621	-	1승	0.297	4.58	0.615	651	507	119	67	53
2	NC	96	58	36	2	0.617	1.5	1패	0.291	4.56	0.605	601	471	125	60	67
3	넥센	103	58	44	1	0.569	5.5	4승	0.295	4.78	0.600	598	534	98	111	77
4	S K	105	51	54	0	0.486	14.0	1승	0.291	4.64	0.473	552	557	139	69	94
5	K I A	104	50	53	1	0.485	14.0	1패	0.292	5.14	0.520	618	582	121	76	78
6	L G	101	48	52	1	0.480	14.5	8승	0.291	5.17	0.551	561	583	88	93	75
7	한화	102	46	53	3	0.465	16.0	1승	0.291	5.77	0.551	579	651	99	52	91
8	롯데	102	47	55	0	0.461	16.5	4패	0.289	5.68	0.542	565	614	91	103	65
9	삼성	101	43	57	1	0.430	19.5	1패	0.288	5.67	0.420	575	616	95	79	63
10	k t	100	38	60	2	0.388	23.5	7패	0.268	5.93	0.385	468	653	82	73	93

•팀간승패-남은경기

팀	두산	삼성	NC	넥센	SK	한화	KIA	롯데	LG	kt
두산	■	7-0-4	6-0-6	6-1-4	8-0-4	8-0-2	10-0-4	5-0-7	6-0-5	8-0-3
삼성	5	■	4-0-5	5-0-5	5-0-6	4-1-9	7-0-5	3-0-9	6-0-4	5-0-7
NC	4	7	■	6-0-5	7-0-4	4-1-5	6-0-5	10-0-1	8-0-4	6-1-2
넥센	5	6	5	■	4-0-8	8-0-4	10-0-1	6-0-4	6-0-6	10-0-4
SK	4	5	5	4	■	4-0-7	5-0-7	6-0-6	7-0-5	7-0-5
한화	6	2	6	4	5	■	5-0-6	7-0-6	4-0-6	3-1-7
KIA	2	4	5	5	4	5	■	8-0-4	6-1-4	8-0-2
롯데	4	4	5	6	4	3	4	■	6-0-5	4-0-5
LG	5	6	4	4	4	6	5	5	■	9-0-3
kt	5	4	7	2	4	5	6	7	4	■

(승=무=패=승) *팀간경기없음

•타격

순위	선수	팀	타율	경기타수	안타	홈런	득점	도루	4사	삼진	실책	OPS			
1	최형우	삼성	0.358	95	360	129	19	67	91	1	62	63	1	0.330	1.059
2	김태균	한화	0.351	102	370	130	10	61	79	1	84	68	4	0.385	0.978
3	이용규	한화	0.351	88	353	124	3	75	33	18	57	21	3	0.338	0.880
4	고종욱	넥센	0.350	98	391	137	8	74	59	23	24	75	1	0.438	0.883
5	박건우	두산	0.347	97	354	123	15	68	63	12	34	62	2	0.333	0.964
6	박용택	L G	0.345	95	365	126	10	64	64	5	44	46	0	0.355	0.880
7	김주찬	K I A	0.344	90	352	121	15	69	70	7	28	46	2	0.429	0.946
8	송경민	한화	0.343	80	309	106	14	60	63	3	21	54	10	0.346	0.938
9	정지윤	S K	0.338	105	414	140	24	57	86	2	32	59	3	0.333	0.961
10	로사리오	한화	0.332	101	394	131	25	62	96	0	31	72	5	0.368	0.978

* 득점권 타율 : 주자 2루, 3루, 1-2루, 1-3루, 2-3루, 만루시 타율 OPS : 홈루율 + 장타율

•방어율

순위	선수	팀	방어율	경기	이닝	실점	자책	승	패	세	타율	안타	홈런	실점	4사	피탈	WHIP
1	니 퍼트	두산	3.10	19	113.1	44	39	14	3	0	102	10	102	46	243	1,24	2.24
2	해 터	K I A	3.36	22	147.1	61	55	11	3	0	146	7	92	45	262	1,28	2.28
3	장원준	두산	3.44	20	123.0	49	47	12	5	0	118	11	100	65	254	1,43	2.43
4	신재영	넥센	3.47	21	122.0	50	47	12	3	0	135	11	76	23	280	1,24	2.44
5	캘 리	S K	3.69	22	141.1	65	58	7	5	0	148	9	100	52	274	1,38	2.38
6	양현준	K I A	3.75	23	151.0	75	63	6	9	0	146	13	109	56	256	1,32	2.32
7	스튜어트	N C	3.91	21	124.1	57	54	11	5	0	127	8	99	51	266	1,38	2.38
8	보우먼	두산	4.09	21	127.2	63	58	12	7	0	112	11	107	45	0.239	1,20	2.20
9	레이리	롯데	4.14	22	134.2	71	62	7	6	0	148	18	106	48	280	1,39	2.39
10	피어밴드	k t	4.26	21	124.2	62	59	6	8	0	149	18	90	35	0.304	1,44	2.44

* 피타율 : 안타 ÷ 타수 WHIP(이닝당 출루 허용) : (안타+볼넷) ÷ 이닝

퓨처스리그 <11일>

•경기결과

팀	1	2	3	4	5	6	7	8	9	R
롯데	0	3	0	0	0	X	X	X	X	3
한화	0	0	1	0	0	X	X	X	X	1

(승)이성민 (패)김범수

팀	1	2	3	4	5	6	7	8	9	R
상무	0	1	2	0	0	X	X	X	X	3
KIA	0	0	0	0	2	X	X	X	X	2

(승)이성민 (패)김범수

팀	1	2	3	4	5	6	7	8	9	R
경찰	3	2	2	0	0	1	X	X	X	8
화성	0	0	0	0	0	X	X	X	X	0

(승)홍정민 (패)김해수

팀	1	2	3	4	5	6	7	8	9	R
삼성	0	0	1	2	1	1	2	0	0	7
kt	3	0	0	0	0	0	0	0	0	3

(승)최충연 (패)김민수 (홈)오정복(1회 1점) 김태환(1회 2점 이상 kt)

메이저리그 <11일>

•경기결과

시카고	3-1	LAA	밀워키	4-3	애들렌타
오올랜드	1-0	볼티모어	SL 루이스	3-2	신시네티
텍사스	5-4	클리블랜드	캔자시티	3-2	시카고W
뉴욕Y	9-4	보스턴	필라델피아	6-2	LAD
샌프란시스코	1-0	마이애미	토론토	7-0	탬파베이
애리조나	3-2	뉴욕M	시애틀	3-1	디트로이트
워싱턴	7-4	클리블랜드	샌디에이고	4-0	피츠버그

경기종합 <11일>

야구 ●제 4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목동야구장)
●16강=군산고 10-4 인천고, 개성고 5-4 선린인터넷고

축구 ●제 13회 추계 1,2학년대학축구대회(충주)
●1조=호남대 3-0 목포과학대 ●2조=배재대 1-1 영남대, 일민대 2-1 예원예
술대 ●4조=성균관대 3-1 안동과학대 ●5조=송호대 4-1 원광디지털대, 경지대 4-1 서울문예대

농구 ●제 2016 중등농구 주말리그 왕중왕전(군산월명체육관)
●남자 고등부 준결승전=안양고 94-79 광신정신고 ●여자 고등부 준결승전=분
당정영고 70-39 화봉고 ●남자 중등부 준결승전=광신중 96-80 전주남중, 흥대
부중 99-69 호계중 ●여자 중등부 준결승전=부일여중 59-52 청송중, 수원제일
중 56-42 송의여중

테니스 ●제 44회 소강대 전국 남녀중고등학교 대학 테니스대
회(강원도 양구) ●남자 고등부 단체전 결승전=전국고A 3-2 마포고A ●남자
중등부 단체전 결승전=안동중A 3-0 건대부중A

●2016년 제 2차 한국 실업 테니스연맹전(영월스포츠파크 테니스장)
●남자 단식전 1회전=안성상정 3-0 고신상정, 현대대상 3-0 도봉구청, 세종시청
3-1 대구시청, 창원시청 3-0 고양시청 ●여자 단식전 8강=금정구청 3-1 안동시
청, 수원시청 3-1 창원시청

경기예고 <12일>

금요일 경기 <12일>

야구 ●2016 퓨처스리그
●삼성-KE(익산, 오전11시), 롯데-KIA(합평), 화성-고양(고양, 이상 오후1시), 두
산-SK(강화, 오후3시), 경찰-LG(이천 LG, 오후6시)
●제 50회 대통령기 전국대학야구대회(광주무등야구장, 오전9시30분)
●제 4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목동야구장, 오후3시)
●16강=경남고-상원고(오전9시30분), 경주고-부산고(오후12시), 대구고-유신
고(오후3시), 휘문고-아탑고(오후6시)

축구 ●2016 내셔널리그 ●경주-강릉(경주시민, 오후6시), 김해-창원(김해종합), 대전-부산(대전한빛, 이상 오후7시)

●제 15회 전국 여자 축구 선수권대회(울산, 오후7시)
●제 13회 추계 1,2학년대학축구대회(충주, 오전10시)

농구 ●2016 중등농구 주말리그 왕중왕전(군산월명체육관, 오후12시)

토요일 경기 <13일>

야구 ●2016 퓨처스리그
●롯데-KIA(합평), 두산-SK(강화), 삼성-한화(서산, 이상 오전11시), 화성-고양
(고양, 오후1시), 경찰-LG(이천 LG, 오후3시)
●제 50회 대통령기 전국대학야구대회(광주무등야구장, 오전9시30분)
●제 4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목동야구장, 오후3시)
●제 13회 추계 1,2학년대학축구대회(충주, 오전10시)

테니스 ●2016년 제 2차 한국 실업 테니스연맹전(영월스포츠파크 테니스장)
●제 42회 대통령기 전국 남녀 테니스대회(전라북도 순창 공설운동장)

월요일 경기 <15일>

야구 ●제 50회 대통령기 전국대학야구대회(광주무등야구장, 오후9시30분)

●제 4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목동야구장, 오후3시)
●제 15회 전국 여자 축구 선수권대회(울산, 오후7시)

●제 13회 추계 1,2학년대학축구대회(충주, 오전10시)
●제 13회 추계 1,2학년대학축구대회(충주, 오전1